SOCIETY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한빛 5호기 비상발전기 작동 '안전 이상 무' 특이사항 없어

한빛원전 5호기에서 저전압으로 인해 비상 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됐으나 발전소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4분 계획예방정비 중인 한빛5호기의 비상 디젤발전기가 자동 기동됐다.

앞서 한빛5호기는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제15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이 중단됐다.

하지만 발전소 내 보조변압기 정비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저전압이 발생했다.

이후 비상 디젤발전기가 자동으로 작동, 즉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5호기 비상 디젤발전기 2대 중 1대가 자동으로 가동됐다는 보고를 받고, 방사능 유출 등을 확인, 특이사항이 없음을 파악했다.

현재 한빛원전 지역사무소를 통해 현장 안전성을 점검 중인 가운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해 원인 등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한빛5호기는 현재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비 과정에서 저전압이 발생한 상세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자연과 공생…전남 학생들 영산강 살리기 나선다

전남도교육청, '2025 공생의 길 프로젝트' 본격화
수질 오염원 분석·정화 방안 마련…지역사회 제안

진도초등학교 학생들이 갯벌 플로깅을 하고 있다.

전남지역 학생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 생태계의 보고인 영산강 살리기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은 '2025 공생의 길(물길·숲길) 프로젝트' 추진 3년 차를 맞아 올해는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생태 활동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공생'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생의 길 프로젝트'는 기후위기 시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생태·환경 교육이다.

지난 2년간 △지역 생태계 이해 증진 △환경보호 실천 △지역사회와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공동체 인식을 확산시켰다.

2023년 155팀으로 시작된 동아리는 2024년 300팀으로 늘었다. 올해는 초·중·고는 물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54팀, 4376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올해 핵심 주제는 영산강 수질 개선이다. 영산강은 전남의 농업과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자원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 미래와 직결되는 생태 축이다. 전남교육청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여 동아리와 함께 1멘토-多멘티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질 개선 활동을 전개한다.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은 영산강 유역의 수질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에 나선다. 특히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점이 주목된다. 학생들은 전문가의 지도 아래 수질을 조사하고, 정화 방안을 마련해 지역 사회에 제안하는 등 실질적 활동을 이어간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는 '디지털생태탐사 지도 웹'에 탑재되어 공유된다. 연간 활동 기록을 출력·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 웹은 학생들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년째 동아리에 참여 중인 묘량중앙초 교사는 "아이들과 자연을 함께 탐구하면서 관계도 깊어지고, 아이들 스스로 환경을 지키려는 자세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지속적인 참여의 이유를 밝혔다.

영산포여자중 교사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말, 행동에서 변화가 느껴질 때 가장 뿌듯하다"며 "올해도 지구와 영산강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정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격려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한강 노벨상 기념…'이 봄 책 봄' 독서 행사

광주시교육청, 산하 6개 도서관과 특별프로그램 운영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2~23일 도서관의 날과 도서주간을 맞아 산하 6개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 진행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중앙도서관에서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직접 필사해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한강 작가와 관련된 온라인 문학퀴즈를 운영해 상식도 쌓고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현재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온라인으로 강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서덕준 작가를 초청해 '삶을 일으켜 세우는 시의 치유력에 대해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독자와 소통한다.

독서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금호평생교육관의 봄맞이 반려식물 만들기와 중앙도서관 분관 최상준도서관의 펜슬 홀더 제작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은 인근 송정공원을 활용한 숲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이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을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문화와 지식을 함께 나누는 소통의 공간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도서관을 더욱 가까이 느끼고 독서와 문화체험을 통해 풍성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23일 각 도서관 자료실과 통합도서관 누리집(https://lib.gen.go.kr)을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캠퍼스의 봄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인 9일 전남대 광주캠퍼스 잔디밭에 학생들이 모여 앉아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사회적경제기업 증가세…자치구 정책 '눈길'

동구, 사회공헌 사업·서구, 우선구매제 추진
남·북구, 인건비 등 지원·광산구, 장터 운영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참신한 정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22년 1381개소, 2023년 1480개소, 2024년 1536개소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가 399개소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382개소, 서구 287개소, 동구 249개소, 남구 219개소 순이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 실현을 우선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원스톱(One-Stop)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공모 준비 컨설팅(창업), 법인 설립·해산, 법률·마케팅 등 개별컨설팅 230건을 실시했다.

또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별별동구'를 만들어 판로 지원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별별동구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과 복지시설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독거어르신 음식나눔 행사, 친환경 카페 운영으로 공동체 상생, 친환경·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도 했다.

서구는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인 '서구 사회적 경제 사랑방'을 만들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랑방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성장·자립을 위한 교육 컨설팅, 정기 교류와 네트워킹 활성화를 진행했다.

서구는 청사, 공원, 광장 등에서 마실길 사회적경제 이음장터를 운영하고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구로 인정받았다.

남구는 지난해 마을기업 3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 10개소와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2개소에 각각 인건비 일부와 사업비를 지원했다. 또 꿈, 추억, 계획, 노력, 열정 등을 담아낼 수 있다는 의미의 공동브랜드 '스담'을 만들었다.

북구는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 고용 확대와 제품 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26개소에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했고, 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신제품 개발·홍보 등 사업개발비를 11개소에 지원했다.

사회서비스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ISO 45001 등 우수기술 인증,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판매전 연계 운영, 지역 행사 연계 사회적경제 장터 운영, 광주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여 등에 나섰다.

북구는 지난해 사회적경제전국활성화네트워크 주관 제6회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거버넌스 부문에서 광주·전남 지자체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았다.

광산구는 판매, 홍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사회적경제 제품 특별판매전과 사회적경제 정기장터인 '상생광산장터'를 진행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